

공간 활용의 미학

좁은 주거공간을 빈틈없이 활용하는 탁월한 ‘배치의 마술’을 보는 듯한 일본의 주택. 그 속에는 그들만의 주택문화가 있고 역사적 배경이 있으며,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음

□ 주거공간의 특징과 생활

- 일본의 맨션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단위 단지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5층에서 20층이 넘는 다양한 유형의 아기자기한 주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
 - 이러한 아파트 중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남향으로 배치된 곳임
 - 습기가 많고 비가 자주 내리는 일본에서 햇볕을 집안 깊숙이 받을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정남향 집은 주택 선택의 최우선 조건이 됨
- 햇볕이 좋은 날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에 이불이 하나 둘씩 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음
 - 해가 지면 테니스 라켓처럼 생긴 후동다다키(布団叩き, 이불털이개)로 털어 들여놓음
 - 저녁시간 일기예보에서 내일은 이불을 널어 습기를 제거하기에 더 없이 좋은 날씨라고 알려주기도 함

- 일본에서 침대가 처음 사용된 곳은 병원과 군대였으며 호텔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용이 확산되었음
- 클라레(KURARAY)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섬유업체가 2005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22명의 응답자 중 약 70%가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잔다고 대답했음
- 그러나 젊은 세대일수록 침대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

□ 마도리(間取り)

-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마도리(間取り)라고 하는데 방이 몇 개 있는가와 L(Living Room), D(Dining Room), K(Kitchen)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불림
- 방이 3개있고 거실과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부엌이 있는 아파트는 3LDK라고 하며, 2DK라고 하면 방 2개와 부엌과 식탁 공간이 있다는 뜻임
- 물론 방과 거실의 크기에 따라 아파트 평수는 다르지만 자녀가 한 두 명인 가정이라면 도심 주변의 3LDK가 보편적인 형태의 아파트가 됨
- * 보다 넓고 쾌적한 주택을 원하는 경향은 일본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
- * 최근에는 이런 주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고급스러운 자재와 보다 넓은 아파트가 주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임

□ 효율적 공간 활용

- 일본의 맨션에서는 넓지 않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

다양한 고안을 한 흔적을 여기저기서 찾아 볼 수 있음

- 이런 공간 활용은 화장실과 욕실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, 우리나라는 보통 세면대와 욕실, 그리고 화장실이 같은 공간에 배치되지만, 일본의 아파트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
- 그래서 아침 시간에 세면하는 사람과 용변을 보는 사람이 한 공간을 놓고 서로 다투지 않아도 됨
- 화장실과 세면대에 들어가는 제품을 보면 대부분 우리에게도 익숙한 토토(TOTO, 東陶機器株式会社)라는 상표가 붙어 있음
- TOTO는 변기제조를 시작으로, 1958년에 플라스틱 욕조를 만들고 1963년에는 유니트바스(Unit Bath, 세면기, 욕조, 환기설비, 전기설비 등을 모두 일체형으로 만든 것)라는 새로운 욕실개념을 도입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음
- 최소한의 공간 활용으로 모든 필요한 요소를 겸비한 욕실로 출품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일본의 아파트와 호텔에 활용되고 있음